

데스크 시각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오곡이 알찬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 문턱에서 우리들의 오랜 숙원이던 꿈이 하나 영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술의 고장’임을 자처해온 우리들에게 그러한 긍지를 가꾸고 또 일구어 나갈 마땅한 ‘자리’ 하나가 없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주일보는 우리 모두의 이런 목마름을 씻어주고 또 우리의 다양한 인간정신을 더불어 살려나가기 위한 갈망에 부응하고자 ‘전라도 사람의 잡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향’으로 본 감독의 성장

광주일보 자매지(誌)인 월간 ‘예향’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창간사에서 밝힌 대로 1984년 10월, ‘전라도의 멋과 일을 지켜나갈 전라도 사람들의 잡지’를 표방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 2월호를 끝으로 잠정 발행 중단했다가 11년 2개월 만에 ‘문화예술 종합 교양지’에서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으로 변화하여 새롭게 복간(復刊)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광주·전남 문화예술 흐름을 따라 독자들과 동행해온 40년 여정(旅程)이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았던

독자들과 함께 걸어온 ‘예향’ 40년 여정

시기에 지방에서 새로운 잡지를 창간해 40년 동안 잡지를 발행해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 등 장기적인 경제난과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부상에 따른 종이출판의 쇠퇴까지 겹쳤다. 그럼에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잡지와 함께 해온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월간 ‘예향’은 지역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Archive) 역할을 톡톡히 한다. 역사·사회학자와 작가들이 1980~1990년대 ‘예향’에 게재했던 과거 기사를 보기 위해 편집국을 찾아오곤 한다. 일찍이 ‘예향’은 한국현대사에서 지워졌거나 잊힌 호남지역 인사들을 재조명한 바 있다. 함평 출신 월북시인 최석두(1917~1951)와 호남 최초의 서양화가 김홍식(1897~1964)을 최초로 발굴(1994년 6월호)해 발자취와 예술세계를 소개했다. 그리고 ‘호남인물사’ 시리즈를 통해 남북 독립운동가 정광호(1992년 2월호), 신안 암태도 소작투쟁 지도자 서태석(1993년 1월호), 호남 근대교육의 선구자 고경주(1993년 3월호), 현대불교의 거목 만암 큰스님(1994년 2월호) 등을 다뤘다.

‘예향’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활동한 역사인물 발굴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명사들의 인생과 예술세계도 꾸준히 지면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장성 출신 임권택 감독은 ‘예향’ 1989년 10월호에서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피력했다. “당시는 55살로 영화 ‘아다다’ (신혜수, 1987년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를 마치고 88 서울올림픽 공식 기록영화 ‘손에 손잡고’를 편집하고 있을 때였다.

“좋은 작품이란 그 나라의 토양에서 그 나라의 정서

나 미적세계가 확실하다든지 메시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 우리의 토양과 정서, 생활을 담고 강조한 우리 색깔의 영화를 만들어야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독자와의 교감노력 지속

이후 임 감독은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아재야제 바라야제’ (1989년), ‘서편제’ (1993년), ‘죽제’ (1996년) 등을 연출했고, 마침내 ‘취화선’ (2002년)으로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100번째 연출 작품인 ‘천년학’ (2006년)과 ‘달빛길어올리기’ (2010년), ‘화장’ (2014년) 등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82세 노장 감독은 ‘예향’ 인터뷰(2016년 6월호)에서 “인생이 녹아서 영화가 되고, 또 영화가 녹아서 인생이 된다”라고 술회했다. ‘예향’ 독자들은 임 감독의 구상에서 27년의 시공간을 사이에 두고 작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지면을 통해 지켜볼 수 있었다.

누구나 피부로 느끼듯 미래 출판시장과 잡지 시장의 전망은 녹록지 않다. 워낙 세대가 신문·잡지와 책 등 활자매체를 멀리하고, 손에서 쫓겨떨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 폰의 위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며 증명하듯 활자의 생명력은 강하다. 이제껏 해왔던 지역의 문화예술 트렌드를 다루고, 사회문제·예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잡지를 받아든 독자들이 설렘을 가지고 책장을 넘기며 ‘울림’과 ‘떨림’을 줄 수 있는 좋은 잡지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과 질책을 바란다.

은편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오늘은 제 47회 노인의 날이다. 1997년에 제정된 노인의 날은 경료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면 노인이란 누구인가? 사전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하며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전성기를 이미 지나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서는 사회제도적 편의를 위하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고 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내년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인 1051만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나이가 많더라도 심신의 건강상태

초고령사회, 노인정책 먼 산의 불이 아니다

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젊은 시절 못지않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노인기준 연령 변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최근의 노인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각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반납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반납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해서 전국 평균 2%대에 불과한 반납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고령화로 인해 아파트 단지 등 민간 영역의 경로행사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인 주민이 늘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지난 대선 기간중에도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크게 일어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이 있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1980년 첫 시행된 이 제도는 당시 70세 이상 노인 80만 5000명에게 이른바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여 50%의 할인 혜택을 주었다.

그 후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해 이를 제도와 하면서 혜택 연령을 65세로 확대하였고, 1984년부터 할인율을 100% 즉 무임승차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의 노인 인구에 비해 지금의

노인 인구 비율이 5배 정도 증가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송 수입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아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관련 급여 및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사업, 노인정착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 철도, 항공, 각종 입장료 할인, 소득공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뿐만 아니라 제도의 역사 또한 짧지 않아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적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노인 연령을 상향시켜서 해결될 정도로 단순하지도 않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 기준 연령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첨예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도 않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일이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그 순환이 자연스럽게 못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청년 계층의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현재의 노인 관련 정책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세대간의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당사자인 고령자 계층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가뭄이나 쌀값 하락 등으로 힘든 상황인데 벼멸구와 극한 호우(9월 19-21일)가 전남지역 벼, 배추 등 많은 농작물에 깊은 생재해를 입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인 올해 전남지역 논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11만 7000ha이다. 가입대상 논벼 면적 14만 9000ha의 79%가 가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나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1년 첫 도입이 되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농가 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그 결과 벼 재해보험의 79%가 가입했다.

벼멸구 피해와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금이나마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질병, 상해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경우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임의

소비자인 자동차도 보험을 가입한다.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반면, 농업인이 주 생계 수단인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는 7108농가가 8014ha면적에 대해 재해보험을 가입했다. 올 3~4월 이상기후로 인해 마늘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발마늘과 양파 생육장 장애 발생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농가에 대해 43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차(茶)·시금치, 마늘, 양파, 밀·귀리, 보리, 양파, 인삼 등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시작한다.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내일 당장 지역농협을 찾아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자.

자연재해와 돌발 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社說

통합 의대 추진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립 의대 설립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는 전남도가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에 앞서 양 대학 통합을 통한 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애초 대학들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공모 절차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굳이 난제 중에 난제인 대학 통합을 들고 나선 전남도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현 상황에서는 공모 절차만 무사히 마쳐도 전남도의 30년 숙원 해결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국립 의대 설립을 계기로 양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의대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자칫 통합 의대 문제로 인해 공모 절차까지 꼬일 경우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상당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려운 길을 택한 전남도의

노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모 과정에서 대학 통합 방안을 들고 나선 것은 양 대학 내부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목포대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에 찬성하면서, 일정 지체로 인해 공모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양 대학의 의견을 분석한 뒤 각계 인사와 대학 구성원 등을 접촉해 통합 의대로 의견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당초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의 정부 추천 시기도 10월 말~11월 초에서 11월 중순으로 2주 가량 연기될 전망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생존마저 어려운 지방 대학의 현실이다.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해 지방의 대표 국립대로 육성하면서 통합 의대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한결 용이할 것이다.

5·18 위자료 법원 따라 4배 차이 나서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서울법원과 광주법원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가 인정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통상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지 않는 만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의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을 보면 5·18 당시 사망자는 4억원으로 광주법원의 2억원보다 두 배 많다.

광주지법은 243일 구급을 당하고 장해 등급 9급을 받은 피해자에 9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서울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1억 8090만원의 받을 수 있다. 단 순장해 10급으로 광주지법에선 24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가 서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9000만원의 받을 수 있다. 똑같이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서울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광주법원에 제기하는 것보다 2~4배 더 받을 수 있겠다니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광주와 서울 법원의 위자료 차이가 나는 것은 배상액 산정이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광주법원이 더 박한 이유는 광주에 피해자가 훨씬 많고 5·18보상법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것을 감안해 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리적 차이가 아닌데도 법원에 따라 위자료 차이가 크다면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광주법원의 위자료 기준 상향이 필요해 보인다.

無等鼓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도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자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뭄이나 짧은 가을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사라질 지경에 이르러 ‘삼계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이를 넘어 겨울 건기와 여름 우기 이계절이 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가을을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 부르며 예찬했다. 특히 가을 하늘의 맑고 청명함을 노래하곤 했는데, 그만큼 보기에도 활동하기에도 좋은 계절로 인식했다.

그런데 조상을 생각해 보면 가을 하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높은 것일

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늘은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을 의미하는데 공기가 지구의 중력에 잡혀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있는 구간으로 지상 약 1000km까지 해당한다. 이 하늘이 높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하지만, 이는 사실로 확인된다. 기상학적으로 보면 여름이 지나고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세력을 확장했던 북태평양 기단이 힘을 잃고 대신 남서쪽에서 형성된 건조한 양

자라져 공기가 깨끗해진 가운데 지표선에 가장 가까운 빛 즉, 파장이 더 짧은 빛이 더 잘 산란하게 되는데 이 색깔이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0월이 됐는데도 땀방울을 쏟아 내거나 흐린 빛을 드러낼까 봐 가을 하늘을 려다보기가 두렵다. 애국가 3절에도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어”라는 가사가 있듯이 가을 하늘은 청명해야 제격이다. /김대성 제2서회부장 bigkim@

기고



마성간
전남도 식량정책팀장

황금 물결로 일렁거리야 할 들녘 곳곳에 구멍들이 생겨났다. 벼멸구가 벼 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을 빨아고 사시켰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장흥에 338mm, 순천에 328.9mm, 강진에 313.4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수확기를 앞둔 논벼들은 쑥대밭이 됐다.

농자재 값 상승과 쌀 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벼멸구와 극한호우까지 더해 앞집데 덮쳤다.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쌀 값만 하락하고 있다. 올 9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4만 3726원(20kg)이다. 전년 동기 5만 137원(20kg) 대비 12.8%가 하락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洵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